

● **진기한 이야기들** **버마 파다웅人은 목이 40cm**
총치는 국민병 아닌 세계병

지구에는 별난 사람이 타 산다

가장 긴 사람의 목

「버마」의 「파다웅」지방 사람은 목에다 놋쇠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 그래서 목의 길이는 40센치로 늘어났다. 여자가 이 목걸이를 하면, 아름다움을 강조할뿐 아니라 정절(貞節)을 지키고 있다는 표시도 된다. 그로 인하여 목의 근육이 극도로 퇴화해서 만약 이 목걸이를 빼어 버리면 질식사하여 죽어버린다고.

**국민병(國民病) 아닌
 세계병(世界病)은**

세계사람이 다 앓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병은 총치다. 영국서는 전 국민의 13%가 21세가 되기전에 이(齒)의 전부가 총치로 희생된다. 일생을 통해서 총치를 한개도 앓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곳에서는 주민의 100%가 이 총치를 앓고 있는데도 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몇개가 최고인가**

「휘이히드」의 보고에 의하면, 손가락은 13개, 발가락은 12개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손톱이 가장 긴 사람은

중국의 어떤 중(僧侶)은 27년 걸쳐 손톱을 58센치까지 키웠다고한다. 이것은 1910년 「상하이(上海)」에서 있었던 일.

현재 기록되어 있는 최장기록은 인도 「뉴델리」의 「라메슈·샤루마」의 엄지손가락이다. 6년 걸쳐 24센치까지 길렀다 한다.

사람의 손톱은 표피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인데, 깎을수 있는 길이가 되기까지는 117일부터 138일을 요한다.

**채혈(採血)을 가장
 많이 한 사나이**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사는 「조

손톱 24센치나 기르고, 32년간 잠을 잔 친구가 일생동안 3만5천병의 포도주를 마신 사나이도

셀·엘마레(1915년생)라는 사나이는 1968년 5월 22일 597번째의 채혈을 했는데, 이 사람이 1931년 이후부터 공혈(供血)한 혈액의 총량은 339리터나 되었다고.

세계 최대의 대주가(大酒家)는

「런던」에서 태어난 「완혼」(1750~1811)이란 사나이는 1788년에서 1811년, 그가 61세로 죽던날까지 3만5천 6백88병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는 23년간 하루도 빠짐이 없이 4병 이상을 꼭 마셨다고.

영국서는 운전수에 대한 알코올의 법정(法定)허용한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80밀리그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600밀리그램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 즉 1968년 크리스마스날 밤, 영국 「크로세스타사·벳트베리」에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자기집 부엌에서 쓰러진 68세의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을 진찰했던 의사 「조지·헛케이」 박사는 자그마치 혈중농도 600밀리그램이란 사실을 밝혀내었는데, 의사 자신도 의심스러워 똑같은 검사를 세번 네번 되풀이 해 봤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세계기록은 490밀리그

람이었다.

32년간 혼수상태로 잡자다

스웨덴에서 1862년에 태어난 「카롤리누·카알손」이란 사람은 1875년 12월 25일 어떤일로 혼수상태에 빠진 이후, 깨어나지 못한채 1908년 4월 3일까지 32년간 99일을 견뎠다. 그리고 그는 1950년 4월 6일, 88세가 되던해에 사망했다.

현재 혼수상태로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미국 「푸로리다」주 「타봉·스프링스」에 있는 「에레느·에스프릿」(1934년 12월 3일생)이란 사람인데, 1941년 8월 5일, 그가 6세 되던 해, 맹장염 수술을 받고 잠이 든채, 1969년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뒤 소식은 불명이나 아직 죽었다는 보고가 없는것으로 미루어 살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40세가 되었을 것이다.

● 기생충 박멸 표어

어린이 건강은
기생충 예방부터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